



전주매일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전북 곳곳 거센 분노

반도체 800조 전남광주 뚫... 전북은 '0조'

새만금 현대차 피지컬 AI 로봇투자 거점만 언급

“3중 소외 넘어 4중 차별” 이원택 도지사직 인수위 민주도당·시민사회 등 균형발전 정책 재검토 요구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계획에서 전북이 사실상 배제돼 전북 사회가 거센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과 영호남 불균형 호남권 내부 차별을 지적하며 3중 소외를 호소해 온 전북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예산과 국가전략산업 배분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며 “4중 차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대한민국 대도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권에 총 800조원을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 생산공장 4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의 재생에너지와 풍부한 산업용지, 전력과 용수 등을 투자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도민들은 실망감과 함께 전북을 너무 홀대한다며 거센 분노를 표출했다

발표 이후 전북에서는 “같은 호남인데도 전북만 철저히 배제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전북만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에서 지워졌다”고 분개했다.

새만금 역시 대규모 산업 용지와 재생에너지, 항만과 공항, 광활한 부지를 갖춘 국가 전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기지 후보에서조차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생산기지는 광주·전남, 반도체 패키징은 충청권, 첨단 소재는 영남권으로 국가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면서도 전북에는 미래 국가 핵심 산업을 배치하지 않았다. 새만금은 현대자동차의 피지컬 AI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인수위원회 최종보고회를 마친 뒤 ‘대한민국 대도와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북 소외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로봇 관련 투자 거점 정도만 언급했을 뿐 국가 미래산업의 중심축에서는 사실상 비껴났다는 평가다

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에서도 깊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수십만 명의 직접·간접 고용과 협력기업, 연구개발, 교육, 정주여건 개선까지 동반하는 국가 최대 성장산업이다. 반면 새만금의 피지컬 AI와 로봇산업은 자동화 비중이 높아 고용 효과에서 반도체 산업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일제히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 자체는 환영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의 성과는 전북에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후속 투자 계획에서 새만금 등 전북의 산업기반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 반도체 유치 추진위원회(준)는 “반도체 입지 조건에서 전북은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전북을 국가 첨단산업 전략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민선 9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역

시 30일 인수위 최종보고서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에는 800조원이 집중되는데 전북에는 단 한 건의 대형 투자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새만금 반도체 생산기지 유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안호영 국회의원도 “새만금은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공간”이라며 “후속 계획에서 새만금을 반드시 반도체와 AI 산업 거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도민들의 여론은 더욱 격앙되고 있다. 그동안 전북만 국가예산과 공공기관 이전, 국가 SOC, 첨단산업 투자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를 겪어왔다. 여기에 이번 800조원 반도체 투자마저 전북을 비껴가면서 “호남 안에서도 전북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전북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조용히 대응해 왔지만 반복되는 전북 소외는 결국 전북의 미래를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차례의 투자 발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반을 재검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초대형 국가전략산업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전북이 보유한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항만 물류 기반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전략 자산이라는 것이다.

전북 사회는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전북 홀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을 국정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전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영호남 불균형, 호남 내부 차별에 이어 국가전략산업 투자에서마저 배제되는 ‘4중 차별’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된다.

전북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전북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공정한 기회 보장이다.

전북도민들은 이제 정부가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변방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함께 성장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세울 것인지 분명한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01만호 기자

도, 보건복지부 추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6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신규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과 5년 이상 장기 근무를 약정하면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지원과 교육·연수 등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올해 사업비 2억9,000만원(국비 50%, 도비 50%)을 확보했으며,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과 민간 종합병원 6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의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필수 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대지안병원, 군산의료원, 원광대학교병원, 남원의료원으로 6개 기관이다. /01만호 기자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 선도지구 선정

민선9기 출범 앞두고 첫 대형 공모사업 쾌거 현대로템 3034억 투자... 미래산업 거점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거둔 첫 중앙부처 공모사업 쾌거다.

이번 선정으로 무주군 적상면 일원에 추진되는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르면, 도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원택 당선인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무주 항공·우주

산업 투자선도지구는 적상면 방이리 일원 36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 3,488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의 핵심인 현대로템 항공·우주산업단지 거점으로 연구개발(R&D)과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양산까지 이루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협력기업 유치를 더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도는 산업단지와 연계한 진입도로 개설, 생활SOC 확충, 행정복합타운 조성도 함께 추진해 산업 기반과 정주여건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지역개발 모델을 구현할 방침이다. /01만호 기자·무주=손홍기 기자

민선 9기, 다시 한번 시민 곁으로

김제의 내일을 잇고
시민의 행복을 키워 갑니다.